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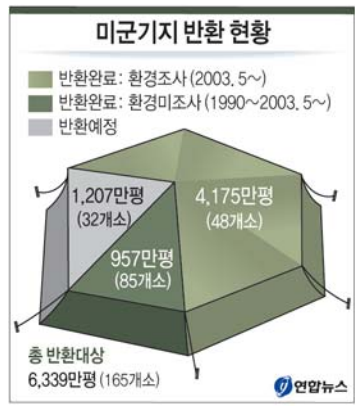
“2003년 이전 반환美기지 환경조사”

정부, 부대 배치도 등 기초 자료 요청 계획

미8군사령관 “다음주 캠프 캐럴 레이더 조사”

정부는 2003년 이전에 환경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1990년부터 2003년 5월까지 반환된 미군기지는 957만평 85개소에 이르며 그 이전에 반환된 미군기지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면서 “이 기지들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다음 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분과위원회 열어 2003년 이전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부대 배치도를 비롯한 기초자료 제공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미군측과 실무접촉을 통해 내주 SOFA 시설분과위 개최와 부대 배치도와 같은 자료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자료를 제공받게 되면 오염 가능성이 큰 부지 순으로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반환 대상인 미군기지는 모두 6339만평 165개소로 이 중 2003년 5월까지 반환된 85개소를 포함해 5132만평 133개소의 반환이 완료됐다. 이 중 2003년 5월 이후 반환된 4175만평 48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조사가 이뤄졌으며 1207만평 32개소가 반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90년 이후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165개소라고 할 때 ‘개소’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지 ‘수’와는 다르다”면서 “캠프 스탠턴의 경우 1996년부터 2007년까지 5개소로 나뉘어 반환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환경조사를 거쳐 반환된 미군기지 48개소 역시 토양오염 조사항목에 ‘다이옥신’이 없는 것

로 확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존 존슨 미8군사령관은 이날 “다음 주에 처음으로 캠프 캐럴에서 레이더로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사령관은 이날 MBC 표준FM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첫 단계는 (고엽제 매몰 의혹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으로 오늘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로 지하투시 레이더로 드림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토양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조사는 한·미 양국의 전문가가 합동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조 연설하는 김항식 총리

김항식 국무총리가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창설 50주년 특별 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일, 베이징 출발 북한행

어제 실리콘 밸리 ‘중관촌’ 방문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오전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중관촌(中關村)을 방문했다. 방문 7일째를 맞은 김 위원장은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은 만찬을 가졌으며 이날 오전 10시께 승용차에 탑승, 숙소인 다폰위타이(釣魚臺)를 나와 중관촌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중관촌에서 리커창(李

克強) 상무부총리의 안내로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인 선저우수마(神州數碼)를 방문했다. 중국 컴퓨터 제조업체인 련상(聯想)에서 분사한 선저우수마는 정보통신 제품 판매 및 정보통신 서비스 공업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8천명여의 직원이 있다. 지난 2008년 중국 100대 보안기업

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5년 기준 매출액은 208억 위안(약 3조4944억원)에 달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26일 오후 2시 19분(한국시간 오후 3시 19분) 베이징(北京)역을 출발했다. 특별열차는 일단 북상한 것으로 알려져 선양과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 때 김 위원장이 다른 곳을 들러 귀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인, 고엽제 사태에 분노해야”

70년대 DMZ 근무 美참전용사단체 대변인

피해자 사례 수집

“한국 국민은 당연히 고엽제 사태에 분노해야 한다.” 미국의 참전용사단체 ‘용사를 돕는 용사회(Vets Helping Vets)’의 데이비드 에퍼슨(51) 대변인은 최근 고엽제 문제가 논란이 되자 과거 주한미군으로 활동했던 퇴역군인 가운데 고엽제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 사례를 모으는 운동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이를 이슈화하고 있다. 1977년부터 약 1년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국에서 야간 수색병, 헌병 등으로 활동한 에퍼슨씨는 25일 텍사스주 델러스 인근의 리치랜드힐스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주한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관련한 파문에 대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어야 했다”면서 에퍼슨씨는 자신이 17살에 불과했던 DMZ 근무 당시 ‘에이전

트 오렌지(Agent Orange)’를 비롯한 각종 고엽제에 노출돼 신경 질환, 두통,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시력저하, 위장장애, 말초신경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복무기간에 얻은 각종 질환으로 한때 한달에 무려 2000알의 약을 복용했다는 그는 “당시에는 고엽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보존처에 관련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받은 뒤 내가 가진 질환이 이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시 주한 미군이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당시 엄청난 숫자의 드림통이 있는 것을 봤지만 기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지금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설명했다. 에퍼슨씨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고엽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미국에선 큰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통일대비 대북정보 강화해야”

국정원 창설 50주년 기념 국가정보학회 세미나

다음 달 10일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가정보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국가정보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보환경 변화와 국가정보 발전전략’을 주제로 국정원 창설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5·16 직후인 1961년 6월10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지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국정원은 출범 당시의 중앙정보부(1961~1980년)와 국가안전기획부(1981~1998년)를 거쳐 1999년부터는 현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을 거듭해왔다. 목영만 국정원 기초실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국정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안보의 파수꾼이라는 소명을 안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국정원이 앞으로 대북정보를 정보목표의 제1순위에

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정원 차장을 지낸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민간의 통일논의에 정보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목표를 설정하고 통일의 기회 요인과 장애요인을 탐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국정원 차장을 지낸 염동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의 중점업무 방향으로 북한의 도발억제와 변화추진을 최우선 정보목표로 삼고 철저한 선택과 집중, 주변 4강 등에 대한 동향 파악, 기술정보(TECHINT) 수집역량 강화, 비밀공작(Covert Action) 강화, 공개정보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보업무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정보기관장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장 임기보장도 주문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1세기 국정원의 활동방향으로 대북정보, 마약·테러 등 국제범죄, 사이버테러, 과학기술정보 등에 대한 역량강화와 국내의 긴밀한 정보공조체계 구축을 들었다. /연합뉴스

남·북한 ‘평화지수’ 크게 하락

천안함·연평도사태 영향 남한 50위·북한은 149위

전안함·연평도 사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한의 ‘평화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관계 연구하는 기관인 경제·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가 25일 펴낸 ‘세계평화지수(GPI) 2011’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3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남한이 1.829점으로 50위, 북한이 3.092점으로 149위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남한은 1.715점으로 43위, 북한은 2.855점으로 139위로 떨어졌다가 이번 평가에서 다시 순위가 하락했다. 평화지수는 무기수출, 폭력범죄의 정도, 전쟁 사상자, 죄수 규모, 조직범죄 수준, 잠재적인 테러 공격 위험, 사회·정치적 갈등 등 23개 지표에 대해 1~5점을 매겨 산출된다. 1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임을 나타낸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 연평도 사

건으로 인해 남북한간 대치상황이 벌어지면서 북한이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최악 수준인 5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이슬란드가 1.148점으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고 다음은 뉴질랜드(1.279), 일본(1.287), 덴마크(1.280), 체코(1.320) 순이었고, 소말리아가 3.379점으로 153위를 기록해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골프여행 전문가 스피드 골프 투어 VIP 초청 고객 사은행사

기간: 2011년 6월 21일(화) ~ 22일(수) 1박2일
1인 ₩399,000

호텔: 특급 오션스위츠 호텔 2인1실
골프장: 1일) 블랙스톤CC 18홀 2일) 엘리시안CC 18홀

포함사항: 광주↔제주왕복항공료, 호텔, 식사(호텔조식), 현지차량료, 그린피2회, 유가할증료
불포함사항: 전동카, 캐디피, 중식/석식.

| 일자 | 지역 | 교통편 | 일정 | 식사 |
|--------|----|--------|--|-------------------------|
| 21일(화) | 광주 | OZ8141 | ★출발 1시간 전까지 도착하셔야합니다. 광주출발(08:30) → 제주도착(09:15) 제주도착 후 골프장 이동 블랙스톤CC 18홀 호텔투숙 및 자유시간 숙소: 오션 스위트 호텔 2인1실 | 중·불포함 석·불포함 |
| 22일(수) | 제주 | | 호텔 조식 후 골프장 이동 엘리시안 CC 18홀 공항 이동 제주 출발(19:10) - 광주 도착(19:55) | 조·호텔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이나 항공편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협찬 아시아나항공 | 예약센터 스피드 골프 투어 062)382-8201 김경호 팀장 010-3613-7810